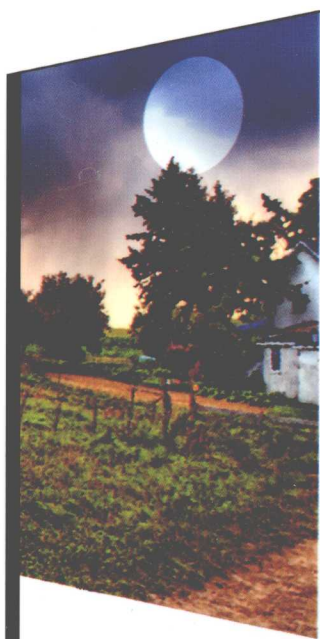


고향

故乡



● 玄镇健 / 著 ● 权赫律 / 编译

在火车上偶遇的日本帝国主义殖民统治下的韩国知识分子和农民，从隔阂渐渐走向理解、产生共鸣，最终互诉情怀。通过知识分子倾听农民背井离乡、辗转他国，重又转回到故乡的经历，展现了日本帝国主义统治下民不聊生的韩国当时的现实。作品短小精悍，蕴含着很深的思想内容。

故乡 고향

标本室里的青蛙 표본실의 청개구리

两百元稿酬 원고료 이백원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故乡

● 玄镇健 / 著 ● 权赫律 / 编译



故乡

◎ 吉林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故乡/(韩)玄镇健著;权赫律编译. —长春:吉林大学出版社, 2009. 10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ISBN 978-7-7-5601-5008-6

I. 故… II. ①玄… ②权…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长篇小说—韩国—现代 IV. ①H559.4: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90781号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故 乡

- | | |
|---------|--|
| ◎作者 | (韩)玄镇健 |
| ◎编译 | 权赫律 |
| ◎责任编辑 | 张显吉 徐 佳 |
| ◎责任校对 | 张显吉 徐 佳 |
| ◎封面设计 | 张沐沉 |
| ◎版式设计 | 张沐沉 |
| ◎出版发行 | 吉林大学出版社 |
| ◎社址 | 长春市明德路421号 |
| ◎邮编 | 130021 |
| ◎发行部电话 | 0431-88499826 |
| ◎网址 | http://www.jlup.com.cn |
| ◎E-mail | jlup@mail.jlu.edu.cn |
| ◎印刷 | 长春市利源彩印有限公司 |

版权所有 翻印必究

150mm×230mm 16开 10.125印张 102千字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第1次印刷

ISBN 978-7-5601-5008-6

定价: 15.00元



차 례

目录

표본실의 청개구리

标本室里的青蛙…………… 1

고 향

故 乡…………… 121

원고료 이백원

两百元稿酬…………… 139





표본실의 청개구리

标本室里的青蛙

廉尚涉著·朴锋奎译

무거운 기분의 침체와 한없이 늘어진 생의 권태는 나가지 않는 나의 발길을 남포까지 끌어 왔다.

귀성한 후 칠팔 개삭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면같이 짓두들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백까지 두식하였다. 나의 몸의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다. 더구나 육칠월 성하를 지내고 겹옷 입을 때가 되어서는 절기가 급변하여 갈수록 몸을 추스리기가 겨워서 동네 산보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면 두세 마디째부터는 목침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양분한 신경만은 잠자리에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 해, 세 해 울 때까지 엎치락뒤치락거리다가 동이 번히 트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 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드러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해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2년 시대에 박물 실험실에서 수염 톱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1

沉重的心情和对生活的厌倦，硬生生地拖着我的脚步来到了南浦。

回到京城七八个月毫无规律的生活，不仅使我的全身软绵绵地如同海绵，甚至连我的灵魂也都蚕食殆尽。全身任何一个部位都充溢着酒精和尼古丁的恶臭，我已经如此疲惫不堪。加上经历六、七月的盛夏之后，需要添加衣服的季节来得较为突然，更使我的身体不堪适应，就是在附近散散步，也都会冷汗涔涔，要跟朋友聊天得先备好木枕才行。

但是，极度亢奋的神经却到了临睡前也不得安宁，经常到了公鸡第二、第三次打鸣的时候也辗转不能入眠，直至熬到天蒙蒙发亮时，才勉强能够合一会儿眼。这种状态持续一个星期之后，我就干脆放弃了关灯上床。

不管是我关灯躺在床上，还是静静地安坐，总有一个挥之不去的场面强烈地刺激我的神经，那就是被解剖的青蛙四肢被针固定在木板上的模样。

在我读初中二年级的时候，上博物学实验课的络腮胡子老师在实验室里解剖青蛙后，把还在冒着热气的青蛙的内脏——掏出，就像放下入



표본실의 청개구리

주정병에 채운 후에 웅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 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뽀죽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박힌 채 벌떡벌떡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8년이나 된 그 인상이 요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 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파란 메스, 달기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바늘 끝, 조그만 전을…….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남향한 유리창 밑에서 번쩍 쳐드는 메스의 강렬한 반사광이 안공을 찌르는 것 같아 컴컴한 방 속에 드러누웠어도 꼭 감은 눈썹 밑이 부시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리맡에 놓인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둔 면도칼이 조심이 되어서 못 견디었다.

내가 남포에 가던 전날 밤에는 그 증이 더욱 심하였다. 간반통밖에 안 되는 방에 높이 매달은 전등불이 부시어서 꺼 버리면 또다시 환영에 괴롭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으나, 심사가 나서 옷통을 벗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스위치를 비틀고 누웠다. 그러나 "뺨응"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스러져 나가자 또 머리를 엄습하여 오는 것은 수염 텃석부리의 메스, 서랍속의 면도다. 메스……면도, 메스…… 잊으려면 잊으려 할수록 끈적끈적하게도 떨어지지 않고 어느 때까지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었다. 금시로 손이 서랍으로 갈 듯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괴이한 마력은 억제하려면 할수록 점차 더하여 왔다. 스스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소스라쳐 눈을 뜨면 덧

睡的娃娃那样小心地放入酒精瓶里，仿佛是有着什么重大发现那样，环顾围在他身边的学生们说道：

“诸位，过来瞧瞧，它还活着呢。”

说完，他就用锋利的针尖逐一拨弄青蛙的内脏，刨去内脏的青蛙就那样被钉在木板上颤动着四肢，仿佛经受着无奈的痛苦。

八年前的那个场面最近重又浮现在眼前，无论怎么努力也无法从记忆中抹去。发出青光的手术刀、不断蠕动的那鸡屎般大小的心脏和肺、针尖、轻微的颤动，这些场景依次浮现在眼前之时，我的头皮会阵阵发麻，全身像泼了凉水般寒冷。

即便是躺在漆黑的屋子里，那朝阳的窗户外高举的手术刀反射出的强烈的反光，好像依然直刺我的眼睛，紧闭着的眼睛好像依然因此而酸涩。每当如此，我就会想起放在床头柜里的刮胡刀，这更使我惴惴不安。

我去南浦之前的夜晚，这种症状变得更加严重。高悬的电灯把小小的房间照得过分耀眼，若关掉它又不无再次陷入到幻影之中的忧虑。但是，我还是打定了主意光着上身，猛地跃起关掉了开关。但是随着“哧溜”的声响透过门缝溜出房门后，络腮胡子的手术刀、抽屉里的刮胡刀重又掩袭而来，占据了 my 脑海。手术刀……刮胡刀，刮胡刀……手术刀，越想忘记它们的存在，它们越是黏住我，在我脑际里交相辉映，连绵不绝。我的手不由自主地伸向抽屉。

这种怪异的魔力越想去控制它，它就越发不可控制。在睡梦中被抽屉拉开的声音惊醒，睁



표본실의 청개구리

문 안 닫은 창이 부엌에 보일 뿐이요, 방 속은 여전히 침적하였다. 비상한 공포가 전신에 압도하여 손끝 하나 까딱 거릴 수 없으면서도 이상한 매력과 유혹은 절정에 달하였다.

“내가 미쳤나? 아니, 미치려는 징조인가?”

하며 제풀에 겁이 났다.

나는 잠에 취한 نوم 모양으로 이불을 와락 차 던지고 일어나서 서랍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그래도 손을 대었다가……’ 하는 생각이 전퇴와 같이 머릿속에 번쩍할 제 깊은 꿈에서 깨인 것같이 정신이 반짝 나서 전등을 켜려다가 성냥통을 더듬어 찾았다. 한 개비를 드욱 켜들고 창틀 위에 얹어 둔 양초를 집어 내려서 붙여 놓은 후 서랍을 열었다.

쓰다가 몇 달 동안이나 꾸려둔 원고, 편지, 약갑 등이 휴지통같이 우굴우굴한 속을 부스럭부스럭하다가 미끈하고 잡히는 자루에 집어 넣은 면도를 외면을 하고 꺼내서 창 밖으로 뜰에 내던졌다. 그러나 역시 잠은 못 들었다.

맥이 확 풀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져 나왔다. 시체 같은 몸을 고민하고 난 병인처럼 사지를 축 늘어뜨려 놓고 누워 생각하였다.

“하여간 이 방을 면하여야 하겠다.”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휘익 둘러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 전부 터 계획이었지만 여름에 한 번 놀러 가 본 신흥사에도 간다는 말뿐이요, 이때껏 실현은 못 되었다.

开眼睛却只有没有关上外门的窗户泛着朦胧的光，房间依然沉浸在黑暗之中。虽然我全身都能被这非同寻常的恐惧所控制，连根手指都无法动弹，但是，另一方面我对那奇特的魅力和诱惑的感受却达到了顶峰。

“我是不是疯了？难道这就是要疯的征兆？”

我为自己的想法所吓倒。

我如同沉醉于睡梦中的汉子，猛地踹开被子跃起，把手伸向了抽屉。但是，在“一旦拿到手就……”的想法雷电一样闪过我的脑际的同时，我仿佛从沉睡中惊醒恢复了精神。我试着要打开电灯，但还是摸索着找到了火柴盒。吱地一声划了一根火柴，拿下并点上了放在窗台上的蜡烛，然后，打开了抽屉。

半途而废并搁置好几个月的原稿、信件、药盒等物就像废纸一样塞满了抽屉，我伸进手去摸索了一会儿，终于触到了刮胡刀滑溜溜的手柄，便转过头取出并从窗口扔到了院子。然而，依然难以入眠。

浑身酸软无力，冷汗涔涔。我就像差点变成尸体的患者，张开四肢软绵绵地躺着陷入了静静的思考。

“无论如何，我也要离开这个屋子。”

我环顾了一下厌倦透顶的房间，这样想道。不管去哪里，几个月前我就有了出游的计划，但也只是说说去夏天曾游玩过一回的新兴寺看看而已，至今也没有付诸行动。



“어디든지 가야겠다. 세계의 끝까지, 무한에, 영원히, 발끝 자라는 데까지, 무인도!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 몸에서 기름이 부지직부지직 타는 남양! 아아.”

나는 그림 엽서에서 본 울창한 산림, 야자수 밑에 앉은 나체의 만인을 생각하고 통쾌한 듯이 어깨를 으쓱하여 보았다. 단 일 분의 정거도 아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있는 굳센 숨을 헐떡헐떡 쉬는 폴스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 만일 타면 현기가 나리라는 염려만 없었으면 비행기! 비행기! 하며 혼자 좋아하였을지도 몰랐었다.

2

내가 두어 달 동안이나 집을 못 떠나고 들어앉았는 것은 금전의 구애가 제일 원인이었지마는 사실 대문 밖에 나서려도 좀처럼 하여서는 쉽지 않았다.

그 이튿날 H가 와서 오늘은 꼭 떠날 터이니 동행을 하자고 평양 방문을 권할 때에는 지긋지긋한 경성의 잡답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기분을 얻으려는 욕구와 장단을 불구 하고 하여간 기차를 타게 될 호기심에 끌리어서,

“응, 가지, 가지.”

하며 덮어놓고 동의는 하였으나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떠나고 싶은지 그만두어야 좋을지 자기의 심중을 몰라서, 어떻게 된 셈도 모르고 H에게 끌려 남대문역까지 하여간 나왔다.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승객은 입장하고 있는

“不管去哪儿，一定要离开这里。走到世界的尽头，无边无际的，永远地，只要是能够走得到的地方……无人岛！西伯利亚荒漠的原野！让太阳晒得滋滋冒油的南洋……啊啊。”

我想起了在某明信片上看到的郁郁苍苍的森林，还有坐在椰子树下的裸体土著人，心中觉得爽快，不禁耸了耸肩。真的想坐上连一分钟也不停留，喘着粗气，挥洒着汗水全速向前飞驰的火车，永远飞奔下去。这是我比任何东西都渴求实现的心愿。如果坐上后，没有产生眩晕的顾虑，也许我就会喊着飞机！飞机！独自一人在那里欢呼雀跃。

2

几个月都没能出门，囊中羞涩虽然是最大的原因，但真的要迈出大门的确也不那么容易。

第二天，H来找我说今天一定要出发，让我陪他一起同行。这次去平壤可以抛开京城许多烦人的琐事，我还没有来得及考虑此行能转换一下自己的心情，仅出于坐火车的好奇心，就爽快地答应“好啊，去，去”。

可是，到了真要出发的时刻，我却举棋不定，不知道自己应不应该去。总之，我就被H不管三七二十一拉到了南大门站。

火车还没到，可乘客们已经开始进站。



중이었다.

나도 급히 표를 사 가지고 재촉하는 H를 따라갔다. 시간이라는 세력이 호불호, 금불금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불가항력하에서 독단하여 끌고 가게 된 것을 나는 오히려 다행히 알고, 되어 가는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풀려 나가는 행렬 뒤에 섰었다. 그러나 검역 증명서가 없다고 개찰구에서 H와 힐난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행렬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아니 가겠다고 하였다.

심사가 난 H는 마음대로 하라고 뿌리치며 혼자 출장 주사실로 향하다가 돌쳐 와서 같이 끌고 들어갔다.

백 축이나 되는 전등 밑에서 히스테리컬한 간호부가 주사침을 들고 덤벼들 제 나는 반쯤 걷어 올렸던 셔츠를 내리며 돌아서 마주섰다. 그러나 간호부의 핀잔과 재촉에 마지못하여 눈을 감고 한 대 맞은 후 황황히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차에 올랐다.

차에 올라 앉아서도 공연히 후회를 하고 앓았었으나 강렬한 위스키의 힘과 격심한 전신의 동요, 반발, 차바퀴 달리는 소리, 암흑을 돌파하는 속력, 주사 맞은 어깨의 침통... 모든 관능을 한꺼번에 뒤흔게 하여 얼이 빠진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벽에는 쿨쿨자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다. 덕택으로 오늘 밤에는 메스도 번쩍거리지 않고 면도도 뛰어나오지 않았다. 동이 틀락말락하여서 우리들은 평양역에 내렸다.

남포행은 아직 이삼십 분이나 있는 고로 우리들은 세면소에서 세수를 하고 대합실로 나왔다. 나는 부석부석 붉은 눈을 내리깔고 소파 끝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在H的催促下，我也急忙去买票跟上了他。我庆幸时间不顾个人的好恶与否，肯与不肯，只是以一种不可抗拒的力量，独断专行地拉着你向前走。一副顺其自然的心态，我站到了逐渐减少的队列末尾。但是，当我看到H因为没有检疫证明在检票口发生争执，便离开队列，表示不愿前往。

恼怒的H先是甩开我的手让我自行其便，自己独自走向旅行注射室，但中途又折回来，拉着我走了进去。

在一百瓦的电灯下，有点歇斯底里的护士拿着注射针走近我的时候，我放下了卷到大臂上的衣袖，转过了身。但是，在护士的嘲笑和催促下，我无奈地闭上眼睛打了一针，匆匆进入站台上上了火车。

坐在火车上我仍在后悔，但是威士忌强烈的酒劲和浑身激烈的反应，隆隆的车轮声，破开黑暗的速度，臂膀上针口的疼痛……这一切搅在一起使我所有的知觉都变得麻木，也使我凌晨开始便昏昏入睡。多亏如此，那发出青光的手术刀和刮胡刀也没有出现在我的梦境里。

天蒙蒙发亮的时候，我们在平壤站下了车。

开往南浦的火车还要等二三十分钟才出发，因此，我们在盥洗室洗完脸，来到了候车室。我闭上红红的双眼坐在沙发的一侧，突然站起来对H说道：



“난 예서 좀 돌아다닐 테니…….”

내던지듯이 한 마디를 불쑥 하고 H를 마주 쳐다보다가,
“혼자 가서 Y군을 만나 보고, 오늘이라도 같이 이리 오면 만나 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돌아다니다가 밤차로 갈 테야.”

하며 H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 나왔다.

“응? 뭐야? 그 왜 그래……. 또 미친증이 난 게로 군.”

하며 H는 벗어 들었던 레인 코트를 뒤집어쓰면서 쫓아 나와 붙든다.

“……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실 Y 군과 만나기로 별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하며 애원하듯이 힘없는 구조로 한 마디 하고,

“영원히 흘러가고 싶다. 끝없는 데로…….”

혼잣말처럼 힘을 주어 말을 맺고 훌쩍 나와 버렸다.

H도 하는 수 없이 테이블에 놓았던 트렁크를 들고 따라 나왔다.

우리 양인은 대동강가로 길을 찾아 나와서, 부벽루로 훤히 동이 틀까말까한 컴컴한 길을 소리 없이 걸었다.

한바탕 휘돌아서 내려오다가 종로에서 조반을 사 먹고 또다시 부벽루로 향하였다. 개시를 하고 문전에 물을 뿌린 뒤에 신문을 펴 들고 앉았는데 청량하고 행복스럽게 보였다.

아까 내려올 제는 능라도서 저편 지평선에서 주홍의 화염을 뿜으며 날름날름 하던 아침해가 벌써 수원지 연통 위에 올라서 천변식목 밑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곁뺨을 눈

“我在这里转转……”

说出这一句后，我看着H接着说道：

“你一个人先去。见了Y君，他如果今天来这里，我也见见他，要不然我就坐晚上的车回去了。”

说完，我没等H的回话径直转身走了出来。

“嗯？你说啥？你怎么啦……是不是疯啦？”

H急忙披上刚刚脱下来的风衣，追上来拉着我说道。

“……我不想见人……其实见了Y君，也没什么可唠的。”

我以哀求的口吻无力地说道，接着又嘟囔一句：

“想永远就这样走下去，向着无边无际的……”

说完，我就毅然走出了候车室。

H也无奈，只好拿起放在桌子上的皮箱，跟着我走了出来。

天还没有亮，我们两人默默地沿着大同江边走在去往浮碧楼的路上。

走了一会儿，在钟路吃了早点，重又向着浮碧楼走了过去。各自打开店铺，在门前洒上水，坐在椅子上悠闲地翻着报纸的人们，显得幸福和安详。

刚刚还在绫罗岛那头地平线上露出点朱红色火焰的太阳，朦朦胧胧地喷洒着朱红色火焰，这时已经升到水源地的烟囱顶上，耀眼地照着走

